

현충일 특별 집회 개요
2005년 5월 27일-30일

전체 주제: 모든 것을 이어받은 시대의 이상

메시지 1

모든 것을 이어받은 이상, 한마음 한뜻, 신성한 계시의 고봉,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성경: 잠 29:18상, 행 26:19, 엡 4:4-6, 계 21:2, 9-10

I. 주님께서 그분의 회복에게 주신 이상은 모든 것을 포함한 이상, 곧 모든 것을 이어받은 시대의 이상이다—잠 29:18상, 행 26:19.

- A. 성경에서 '이상'이란 비범한 광경을 의미한다. 이것은 특별한 장면—영광스러운 내면의 장면—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본 영적인 광경을 말한다—겔 1:1, 4-28, 단 7:1, 9-10, 13-14.
- B. 이상을 가지려면 우리는 계시와 빛과 시력이 필요하다—엡 1:17-18상.
- C. 주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이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행 26:13-19.
- D. 하늘에 속한 이상은 우리를 지배하고, 제한하고, 통제하고, 지시하고, 보존하고, 변혁시키며, 우리를 진정한 하나 안에 지켜 주고, 우리에게 전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준다—잠 29:18상.
- E. 하늘에 속한 이상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하게 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통제된다—빌 3:13-14, 딤후 1:4.
- F.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이상이 있으며, 우리는 그 시대의 이상에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행 26:19, 엡 1:17, 3:9.
- G. 우리의 이상은 시대에 부합하는 이상—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망라하는 이상—이다.
 - 1. 주님께서 그분의 회복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상은 모든 이상들의 궁극적인 완결인 새 예루살렘이다—계 21:2, 9-10.
 - 2. 이 궁극적인 완결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 H. 성경의 지배하는 이상은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이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사람들 안으로 그분 자신을 넣는 역사를 하시어 그들의 온 존재를 신성한 삼일성으로 적심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하고 건축하는 것이다—엡 4:4-6, 계 21:2, 9-10.

II. 우리의 한마음 한뜻은 모든 것을 이어받은 시대의 이상 안에 있다—행 26:19, 1:14, 롬 15:6.

- A. 우리의 이상이 최신의 이상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가 되기는 불가능하다—잠 29:18상.
- B. 역대로 주님의 많은 종들이 일으켜졌지만 그들은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없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본 이상이 달랐기 때문이다.
- C. 주님의 회복의 특징은 창세기의 첫 장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까지 수전이 완전히 겹쳤다는 것이다.
- D. 우리는 모두 한마음과 한길로 하나의 관점을 가짐으로써, 최신의 이상 안에 있어야 한다—렘 32:39.
 - 1. 우리는 모두 한마음—우리가 하나님의 표현이 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으로 조성된 마음—을 가져야 한다—엡 3:17상.
 - 2. 우리는 모두 한길—신성한 역량을 가진 생명의 내적 법이신 삼일 하나님—을 가져야 한다—렘 31:33-34, 요 14:6.
- E.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은 우리의 온 존재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우리의 외적인 말이 하

나가 되는 것이다—롬 15:6.

1. 한마음 한뜻이 될 때마다 우리는 같은 것을 말하고 한 입으로 말한다—고전 1:10, 빌 2:2.
2. 한마음 한뜻이 되고 한 입을 갖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과 입에서 모든 것이 되실 수 있는 여지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다—엡 3:17상.

III. 성경이라는 ‘상자’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 인 신성한 계시의 고봉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는 계시이다—삼하 7:12-14상, 롬 1:3-4, 엡 3:17상.

- A.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 이 하나님의 경륜이다—딤후 1:4.
- B.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게 하며, 하나님 자신을 사람과 하나 되게 하고 사람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함으로써 그분의 표현이 확대되고 확장되어, 하나님의 신성한 모든 속성들이 사람의 미덕들 안에서 표현되게 하는 것이다—엡 3:9, 1:10.
 1. 하나님의 큰 기쁨은 사람과 하나 되시어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과 똑 같이 만드시는 것이다—엡 1:5, 9.
 2.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목적은 그분 자신의 대량 생산을 얻음으로써 새로운 종(種), 곧 하나님-사람 종을 산출하시려는 것이다—요 1:1, 14, 12:24.
- C.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과 본성과 조성 성분으로 우리 안으로 건축하시어, 우리를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엡 3:17상, 골 3:4, 10-11.
- D. 하나님은 육체 되심을 통해 사람이 되셨고, 사람은 거듭남, 거룩하게 됨, 새롭게 됨, 변화됨, 같은 형상이 됨, 영화롭게 됨을 통해 하나님이 된다—요 3:5-6, 1:12-13, 롬 6:19, 22, 12:2, 8:29-30.

IV.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을 하나님이 되게 하심으로써만 그리스도의 몸이 산출될 수 있다. 이 요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상의 고봉이다—롬 8:3, 1:3-4, 8:14, 12:4-5.

- A.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은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이자 그 궁극적인 나타남이 새 예루살렘인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하시기 위해서이다—엡 1:22-23, 4:4-6, 계 21:2, 9-10.
- B. 성경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유기체가 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 준다—롬 1:3-4, 12:4-5.
 1. 이 유기체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사람과 결합시키고 연합시키시어 하나님을 사람이 되게 하고 사람을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이다.
 2.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하나님이 된 결과는 하나의 유기체이다. 이 유기체가 그리스도의 몸—하나님과 사람의 연결과 연합—이다—엡 4:4-6.
- C.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보내어 사람이 되게 하였고 신성한 생명에 의해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하게 하셨다. 그러한 생활이 그분과 똑같은 우주적인 한 사람—신성한 생명에 의해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하는 단체적인 한 사람—을 가져온다—롬 8:3, 12:4-5.
- D.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는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되고 연합되어 단체적인 한 하나님-사람을 살아 내는 것이다—엡 4:4-6, 24.